

令壽閣 詩의 美的 特質

김 여 주*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미적 특질 |
| II. 영수합의 작시활동의 배경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다양성을 구가하던 조선후기의 사대부 문학 활동, 곧 경화세족들의 문학 활동의 자장 안에서 조선 여성들의 의식이 한시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 기존 연구였다면, 본고는 영수합의 작품 자체에 보다 집중하였다. 이는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의식세계를 유추하고, 작품의 창작 배경을 살펴 문학적 의의를 밝혀내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문학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작품 자체에 드러나는 풍격과 순수한 감성적 면모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영수합 시의 대부분이 농서 시절에 가족과의 唱酬作品으로, 그 대상이 남편, 아들과 두 딸이었다. 그러나 작품에 드러난 주 대상은 아들이고 남편에 대한 情意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더욱 특이한 것은 『幽閒集』이라는 詩集을 남겨 놓은 큰 딸인 幽閒堂 洪原周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이것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의 여성 시작활동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yjkim@sungshin.ac.kr

그럼에도 문집으로 발간할 수 있었던 영수합의 시에 대한 자식들의 자부심이 기도 하며, 『命壽閣稿』의 작품이 선별되어 선집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선 隴西에서 주변의 경관과 일상의 흥취를 맑고 담박하게 그려낸 시들에서는 清新한 감각이 맑고 담박한 자연과 어우러져 그려지면서 冲澹한 풍격을 형성해 놓고 있다. 또한 양적으로는 모성을 드러내며, 고향인 한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따뜻하고 절제된 감성으로 묘사한 시들이 가장 많다. 농서에 있으면서 자식들에 대한 애뜻함, 고향인 한양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정감이 교차되면서 그 감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편이지만 서글퍼서 애를 끊이는 감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절제하면서 “哀而不傷”함을 통해 전아한 풍격미를 드러낸다.

擬作이라는 표현을 통한 남편과의 창수 작품에서는 여성적 감성보다는 노련하고 힘이 있는 선비의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부드럽지만 세밀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老健한 풍격을 드러낸다. 물론 이것을 사대부가의 여성으로 자라면서 사대부적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서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모성애를 지닌 따뜻한 눈으로 타자를-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영수합 특유의 의식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시적 미감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영수합의 시적 재능인 것이다.

【주제어】 서영수합, 청신, 충담, 전아, 노건, 선비의식, 여성문학

I. 들어가는 말

조선후기 사대부 계층에 있어서 한시를 짓는 행위는 창작행위이기도 했지만 생활 그 자체였다. 그들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한시는 소통을 위한 일상의 도구였던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여성들-士大夫家 婦女들-에게서조차 한시가 창

작되어 문집이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통제와 여성의 시문집 발간이라는 이중적 상황 속에서 『令壽閣稿』의 발간은 令壽閣의 시적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영수합은 여자가 문학에 능하면 운명이 기박하다는 시대적 통념과 외 조모의 禁制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才質과 총명함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별도의 교육을 받지 못해 오직 형제들의 글 읽는 소리를 곁에서 듣는 것이 고작이었을 뿐인데도 열다섯 살이 채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책을 섭렵하고 뛰어난 言辯을 갖추어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영수합은 자신의 이름으로 詩 115題 191首와 辭 1題를 남기고 있는데, 그녀의 작품들은 남편 흥인모의 詩集 『足睡堂集』 6권에 『附令壽閣稿』라는 표제로 실려 있다.

기존의 영수합 연구¹⁾를 살펴보면 영수합 한시를 의식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의 典型으로서 작가의 의식세계를 살펴거나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한시 창작의 면모를 살핀 연구 성과 등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중국 유명시인의 시에 차운한 시를 중심으로 原詩 풍격과의 영향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²⁾.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적·문학적으로 다양성을 구가하던 조선후기의 사대부 문학 활동, 곧 경화세족들의 문학 활동의 자장 안에서 서영수합의 의식이 한시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본고는 영수합의 작품 자체에 보다 집중한 연구이다. 이는 작품을 통

1) 이정화, 「徐 令壽閣 詩 研究」, 숙명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여주, 「朝鮮後期 女性文學 研究-令壽閣 徐氏의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최정원, 「徐令壽閣의 研究」,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이정화, 「徐令壽閣 詩의 風格研究-次韻詩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5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해 작가의 의식세계를 유추하고, 작품의 창작 배경을 살펴 문학적 의의를 밝혀내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문학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작품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시적 특징을 이해한 뒤에야 한 작가의 의식세계 및 문학성 전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 작품을 의식과 주제의 측면에서 살펴 그 특징을 아울러 범범하게 기술하였던 선행 연구³⁾와는 달리 본고는 미시적 관점에서 작품 자체에 드러나는 풍격과 순수한 감성적 면모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라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영수합의 작시활동의 배경

令壽閣 徐氏(1753-1823)는 순조 때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던 洪仁謨의 부인으로 슬하에 3남2녀를 두었는데, 곧 당대 재상을 지낸 큰아들 奭周[淵泉], 둘째 吉周[沆瀣], 駙馬가 된 막내 顯周[永明尉]와 큰딸 幽閑堂 原周[沈宜奭妻], 둘째딸[李顯愚妻]이다. 令壽閣의 ‘令壽’는 그녀의居室 이름인데 남편이 붙여준 것이라고 한다.

영수합의 아버지는 강원도 관찰사로서 吏曹參判을 제수받았던 徐迥修(1725-1779)이고, 어머니 安東金氏는 禮曹判書 文簡公 金昌協[農岩]의 증손녀이자 世孫의 贊善을 맡았던 文敬公 金元行[漢湖]의 딸이었으니, 영수합은 전형적인 士大夫家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14세에 홍인모와 혼인하였는데, 豊山洪氏 가문 역시 祖父代로부터 재상을 지내 온 집안이었다. 영수합의 남편 홍인모(1755-1812)(字 而壽, 號 足睡居士)는 1783년(정조 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蔭補로 벼슬에 올라 戶曹參議 右

3) 김여주, 「徐令壽閣의 漢詩研究」, 『朝鮮後期 女性文學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副承旨를 지낸 인물로 古文 여러 편과 古體詩·近體詩 2,000여 편을 『足睡堂集』에 남기고 있다. 그러나 영수합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그녀의 생활상과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큰아들 홍석주가 『令壽閣稿』에 기록해 놓은 행장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남편 홍인모의 詩集 『足睡堂集』의 부록 형태로 전하고 있는 『令壽閣稿』에는 영수합의 詩 115題 191首와 辭 1首가 전하고 있는데 그 詩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詩 型	首
五言律詩	79
五言絶句	28
七言絶句	25
七言律詩	25
五言古詩	21
六言詩	8
七言古詩	2
四言詩	2
三五七言詩	1
합	191

이를 통해 영수합이 애용한 詩型이 오언시, 그 중에서도 오언율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男性詩人들과 특히 女性詩人 金雲楚가 7言律詩 등 7言詩 형태를 애용한 것⁴⁾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편적으로 오언시는 그 내용을 詩語 상의 압축을 통해 간결하게 표현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곧 영수합 역시 시의 간결미를 추구하는 자세로 詩作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4) 김여주, 「金雲楚의 漢詩研究」,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6. 참조.

영수합이 본격적으로 시를 짓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늘그막에 隴西⁵⁾로 부임해 가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데, 시 짓기를 좋아했던 홍인모가 자신의 시에 화답할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강권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연도를 추정해보자면, 홍인모의 『足睡堂集』 卷3의 첫 번째 시 「平壤東教場 點送赴操軍 歸路登練光亭 是日晴佳 渾眷團集」에 ‘丁卯’(1807)라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瑞興赴任後 簿牒破閑 漫吟記實」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으니 대략 1807년 즈음 홍인모가 농서에 부임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수합의 시작품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令壽閣稿』에 실려 있는 제일 첫 번째 시, 「寄長兒赴燕行中 五首」는 큰아들 爽周가 처음 謝恩使 書狀官으로 燕京에 가는 것(1803)을 전송하면서 지은 것을 제외하면, 두 번째 수록된 시 「次杜春水」는 ‘戊辰(1808)’에 지었다고 연도가 기재되었고, 세 번째 시 「隴西暮春」에는 ‘隴西’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서 현전하는 영수합의 작품들이 농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창작되었고, 농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아들 爽周가 남긴 行狀⁶⁾을 살펴보면, 남편의 강권으로 인해 자기 못해 作詩를 하게 된 영수합은 『唐律詩』 한 권을 독파한 지 열흘도 못되어 律詩를 짓게 되고, 長篇硬韻이라도 곧바로 지을 정도로 뛰어난 시적 재능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문학에 대해서는 ‘아녀자의 일이 아니라는’ 자세를 잃지 않아 남편과 자녀들 이외의 사람들과는 어울려 시를 짓지 않았다. 이 때문에 唱酬 대상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시를 짓지 않았던 것이다.⁷⁾

5) 농서(隴西): 黃海道 瑞興의 옛 이름. (權相老編, 『韓國地名沿革考』, 동국문화사, 1982.)

6) 洪爽周, 『令壽閣稿』, 「貞敬夫人行狀」, p.7, “先考喜爲詩 晚歲在郡邑 無可與唱和者 乃強屬先妣 先妣猶不肯 曰奈不識平仄何 先考以唐律詩一卷與之 未浹句 卽能作律詩 長篇硬韻無不立 就然 終不肯手自作字 先考命不肖輩 從傍竊書 前後得數百餘篇 … 自先考喪後 遂絕不復作”

7) 홍석주의 연보에 1812년 10월에 부친상을 당했다고 되어있고, 『令壽閣稿』 마지막 부분의 「次韻 二首」에 壬申(1812)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여주, 앞

이렇듯 영수합 시는 대부분 농서 시절에 가족과의 창수를 위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남편과 세 명의 아들들, 두 명의 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詩作이 이루어졌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통해서 드러난 시적 대상은 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남편에 대한 情意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큰 딸 幽閒堂 洪原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以何如高臥東牕分韻賦各體(臥韻)」에 보이는 “兒女滿眼前”이라는 표현을 통해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뿐이다. 이것은 幽閒堂 洪原周의 시집 『幽閒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153題 194首)이 모두 농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⁸⁾을 감안하면 특이한 점이라고 할 만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영수합의 시작품에는 남편 홍인모와의 창수 상황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足睡堂集』 수록 시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 같은 운을 사용한 차운시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중국 유명시인들의 운자를 사용하지 않고 남편 홍인모가 지은 시의 운자를 사용한 경우, ‘擬作’이라는 용어를 附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양자 간의 창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영수합이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잦은 창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합의 시 작품들이 유독 ‘아들’과의 시적 교류만 문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영수합고』의 작품들이 選集되었을 가능성을 시

의 책, 2004, pp.339-351.에서 ‘생애 및 시에 대한 견해’ 등을 자세하게 밝혔으므로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보충해야 할 내용은 상세하게 첨가하였음.); 조연숙, 「조선후기·서영수합」, 『한문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p.181-187. 참조.

8) 『幽閒集』에 첫 번째 시 「次仲氏韻 丁卯(1807)」가 창작 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幽閒集』 수록 시를 모두 살펴보니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농서에서의 생활상을 다루고 있거나 가족들과의 차운시로 이루어져 있다. 홍인모의 『足睡堂集』에서도 제목에 드러난 것은 「示兩女」 한 편 뿐이고, 막내아들 홍현주의 『海居齋詩鈔』에서 첫 번째 실린 작품 「東嘉十景」에 온 식구들의 차운한 작품을 “謹附原軸”이라 하여 붙여 놓았는데 여기에도 原周의 작품은 빠져 있다.

사한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보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여성의 시작활동을 환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시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일정정도 부담을 안아야 하는 작업이었을 것이고 자연스레 시세계의 면면이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모범을 드러내는 시들 중심으로 선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선별된 시들은 조선후기 남성들이 원하는 사대부가 여성의 시세계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 여성시집 발간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영수합의 시를 문집으로 간행한 자식들의 자부심까지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수에 가까운 적지 않은 작품들이 남겨졌다는 점은 영수합 개인의 작가적 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영수합 개인의 시적 재능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시작품들을 세밀하게 분석해봄으로써 그 미적 특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미적 특질

영수합은 시를 지음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만의 韻字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담아내기 보다는 중국 유명 시인들의 시작품과 가족들의 唱酬詩에 次韻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제목에 ‘擬古’라고 밝히거나 ‘呼韻’·‘次韻’·‘用韻’ 등을 명시한 경우가 전체 115題 중 84題에 달하고, 제목 뒤에 ‘擬作’을 붙인 것이 7題이다. 이 중에 중국 유명 시인들의 작품에서 韻字를 빌려온 것이 58題로 가장 많고 아들의 시에 차운한 것이 14題이며, 제목 뒤에 ‘擬作’이라고 밝힌 7수의 작품은 모두 남편과 창수하면서 지은 시로, 홍인모가 사용한 韻字를 그대로 받아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영수합은 적극적으로 詩作 활동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次韻·呼韻에 의해서 시를 지었으며 남편을 비롯한 온 가족들이 모여 시를 唱酬하는 경우, 또는 자녀들이 부쳐온 글에 화답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수합의 문학행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큰아들 홍석주의 행장 기록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특히 “마침내 손수 짓기를 즐기지 않으셨다[終不肯手自作字]”⁹⁾고 한 데에 집약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왜 영수합의 시작품 중에 유독 차운시의 비율이 높은지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영수합은 詩作行爲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려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태도는 같은 여성이지만 妓女나 小室 階層의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여 詩作行爲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상이한 점이라 하겠다. 士大夫家 여성의 특혜로서 학구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詩作行爲가 생활화·체질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타고난 才質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자신의 작가적 기질과 시적 재능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기도 한 것이다¹⁰⁾.

이제 좀 더 세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시의 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수합은 농서에서 생활하면서 주변의 경관과 일상의 흥취를 맑고 담박하게 청신한 미감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충담한 풍격으로 정신세계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아들에 대한 모성을 드러내거나 고향인 한양에 대한 鄉愁를 주제로 하는 시들을 통해서도 따뜻하고 절제된 깔끔한 감성을 전아한 풍격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擬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남편과의 창수 작품에서는 여성적 감정보다는 노련하고 힘이 있는 선비 의식을 표출하였다. 즉, 자신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모성애를 가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타자-백성-를 보듬는 따뜻한 시선까지 가미하였으니 이를 통해 영수합 특유의 시적 특징이 드러난다.

9) 각주 6) 참조.

10) 김여주, 앞의 책, 2004, pp.345-348.

1. 청신한 미감과 충담한 풍격¹¹⁾

사대부가 여성인 영수함은 시를 쓰는 행위 자체에 사회적 금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시를 통해 일상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대부들과의 삶 속에 의탁하고 있었으니 자신의 시적 재능을 끝까지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남편 홍인모가 황해도 농서에서 벼슬을 했던 5년여의 기간은 온 가족이 시를 활발히 지어 『家族唱酬集』을 엮을 만큼 詩作이 생활화 되었으니, 영수함 역시 시 짓기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首에 가까운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영수함의 시는 대체로 농서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경관과 일상의 흥취를 읊은 시들이 주를 이루는데, 맑고 담박하게 청신한 미감을 그려내거나 충담한 풍격으로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鶯啼綠樹報新晴	녹음 짙은 숲 피꼬리 날 개었다 지저귀고
芳草萋萋春復生	무성하게 우거진 풀 봄은 다시 새롭구나
柳帶朝烟還沓翠	아침 안개 먼 버들은 되려 더욱 푸르르고
花含宿雨更分明	지난 밤 비 머금은 꽃 새삼 색깔 선명하다
行雲過水看無跡	가는 구름 물 위 지나니 쳐다봐도 자취 없고
疎竹迎風聽有聲	성근 대숲 바람 맞자 듣기 좋게 소리나네
強上高樓窮遠目	높은 누대 굳이 올라 눈길 멀리 바라보니
此時難爲故園情	바로 이때 고향 그리움 어찌 할 수 없구나 ¹²⁾

11) 박경신, 「栗谷 李珣의 詩文學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76-84. 참조.;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2, pp.170-178. 참조. 이 논문에서 清新은 淸淨非凡이니 淸은 유려하여 속되지 않은 것이고 新은 평범하지 않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栗谷 李珣, 『精言妙選』, 「利字集-淸新灑落」의 시들의 공통점은 시적공간이 세속과의 단절이고, 빈번한 소재가 가을과 淸泉이라고 하였다. 또한 車柱環은 『中國詩論』(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116-117.에서 “司空圖, 『二十四詩品』에 冲澹은 고상하고 생각이 원대하며 몸을 잊고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이 시에 반영되어 자아내는 미감”이라고 하였다.

12) 『令壽閣稿』, 「隴西暮春」.

남편의 任地인 농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린 시인데, 首聯의 “春復生”을 頷聯·頸聯에서 늦봄의 정경으로 맑고 깨끗하게 그려 놓고 있다. 가장 청신한 풍광을 그려놓고 이 좋은 정경에 고향 그리움이 촉발되는 것은 당연한 情임을 담백하게 토로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소재들을 그대로 들어 야단스럽지 않게 표현한 것이다. ‘綠樹’와 ‘鶯啼’, ‘柳帶朝烟’와 ‘花含宿雨’가 그러하고, 시각과 청각과의 조화도 빼어나다. 그래서 향수를 표현한 시이지만 마음을 상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막내아들 현주의 「東嘉十詠」¹³⁾에 차운해서 쓴 시이다.

①

雲散天如拭	구름 흩어 하늘은 닦아 놓은 듯
中宵月滿庭	깊은 밤 달빛만 뜰 가득하네
坐愛松林晚	다 늦게 송림에 앉았는 것은
清陰翳小亭	맑은 그늘 작은 정자 둘러싸서라

②

嫩葉纔盈寸	어린 잎 한마디 남짓 자랐고
瘦枝上欄齊	아윈 가지 난간까지 올라와 있네
有時微風發	때때로 산들바람 불어올 때는
清響自高低	제 스스로 맑은 소리 골라내누나

徐令壽閣의 『令壽閣稿』는 남편 홍인모의 문집 『足睡堂集』 卷6에 『附令壽閣稿』라는 표제로 실려 있으나, 이후 작품 제목을 제시할 경우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令壽閣稿』, 「隴西暮春」과 같은 형태로 표기함.

13) 『令壽閣稿』, 「次季兒東嘉十詠(東嘉即季兒所居)」.

家族唱酬詩의 대표적 작품으로, 홍현주의 『海居齋詩鈔』에서 현주의 첫 번째 실린 작품 「東嘉十景」에 온 식구들의 차운한 작품을 “謹附原軸”이라 하여 붙여 놓았다.

③

東林月初上 동쪽 숲에 달이 처음 솟아오르니
 棲鶴驚飛雙 깃든 학이 놀라서 쌍쌍이 난다.
 蕭蕭翻羽翮 푸득푸득 번드치며 날개 짓 하니
 疑是浴清江 맑은 강서 목욕한 듯 말끔하구나

④

幾度經風霜 바람서리 겪은 것이 그 몇 번인가
 今秋又吐黃 올 가을 또 누런 꽃 터뜨렸구나
 影泛盃中物 그 꽃을 술잔 속에 띄워보노니
 何如栗里香 陶淵明의 栗里 향과 어찌 다를까

⑤

芬華非素志 화려하게 꾸미는 것 본 뜻 아니라
 淡泊稱我懷 맑고 깨끗한 것 내 맘에 맞아
 焚香坐深院 향 피우고 깊은 방에 앉아 있으니
 清風拂面來 맑은 바람 불어와 얼굴 스친다

東嘉는 막내 현주가 사는 곳으로 齋洞의 별칭¹⁴⁾이다. 현주가 자신이 사는 재동 주변의 풍광과 정취를 10개의 題材로 해서 읊어 보낸 것에 식구들이 각각 차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영수합이 지은 작품이다. 이 시는 특히 동일 題材를 가족들이 저마다의 시적 표현 방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어 부모-자식 간의 시세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시들 중에 하나다¹⁵⁾. 영수합은 각 題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눈에 보이는 실경과 그윽한 정취를 작자 자신의 맑고 깨끗한 정신

14) 『足睡堂集』 卷3, 「季兒寄示東嘉十詠 次韻以贈」의 제목 밑에 “東嘉即齋洞別稱 季兒所名也”라고 註가 달려있다.

15) 가족 간의 唱酬詩 연구를 통해 시적 특징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논의가 되겠으나 여기서는 영수합의 시적 특징과 연계되는 부분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시세계의 비교·분석은 후속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세계로 끌어들이며 담박하게 그려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10수 중 5수만 선별하였다.

① 「松間明月」에서는 저물녘 솔 숲 그늘에 쌓인 정자에 앉아 구름 겹쳐 말끔한 하늘에 달빛 가득한 정취를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려 놓았다.

② 「竹裏清風」에서는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대나무 가지가 산들바람에 맑은 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려서 강인함 보다는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청각적 감각을 통해 맑은 세계를 조화롭게 묘사해냈다.

③ 「林中雙鶴」에서는 동쪽 숲에 달이 막 떠오르는 그 환한 정경을 학들이 놀라서 쌍쌍이 나는 모습으로 動態化하고 있다. 동시에 환하고 맑은 달빛과 하얀 학들의 움직임으로 맑은 세계를 그렸다.

④ 「東籬黃菊」에서는 바람서리 겪어야 꽃을 피우는 국화의 모습을 “吐黃”으로 생동감과 색감적 표현을 적절하게 매치해서 효과적으로 그려내었다. 결국 소재목 자체에서 드러나듯 국화는 도연명과 연계될 수 없는 것이어서 「飲酒」의 “採菊東籬下”를 연상하게 하는 담박한 표현에서 도연명이 지향하는 맑은 세계를 자신의 정신세계로 동일시하였다.

⑤ 「小樓焚香」에서는 ① 「松間明月」에서 등장했던 그 “작은 정자[小樓]”에 앉아서 보이는 풍광과 느끼는 정취를 읊은 것인데, 「東嘉十詠」의 마지막인 이 시에서 자신이 지향하고자하는 세계가 맑고 담박한 세계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마치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주제를 각각 읊었으면서도 각각의 주제들을 통해 결국에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맑고 담박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였다. 작자의 청신한 감각과 청각적 미감의 발현으로 맑고 담박한 세계로 그려지면서 충담한 풍격을 형성해 놓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남편인 홍인모의 同題目的 시에서 보여주는 시적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①

枝枝承月色	가지마다 달빛 내려 받아서
盤鬱覆間庭	구불구불 그윽한 뜰 온통 덮었네
淸吟坐其下	그 아래 앉아서 맑게 읊자니
昭曠勝紅亭	넓고 트인 붉은 누대 보다 더 좋다

②

弱篠含貞操	약한 가지 굳은 정조 품고 있어서
羣芳不敢齊	못 꽃들이 감히 바로 겨루지 못해
自可風吹動	제냥 바람 따라 흔들릴 거면
寧爲雪壓低	차라리 눈에 눌러 꺾이고 말걸

③

瀟灑名園裏	이름난 동산이라 맑고 고상해
徘徊鶴一雙	하얀 학 한 쌍이 배회를 한다
莫爲稻粱足	벼와 기장 풍족하기 때문 아니고
能忘舊淸江	옛 맑은 강 잇을 만해서 이겠지

④

東籬昨夜霜	동쪽 울타리 어젯밤 서리 내려서
萬朵發新黃	수만 꽃 봉 새로 누런 꽃 활짝 폈네
百花俱淒落	온갖 꽃 떨어져 다 처량한데
人間獨爾香	인간세상 너 혼자 향기롭구나

⑤

習靜書樓上	고요하게 맘 갖자고 누대 오르니
芬華莫置懷	높은 지원 맘속에 품지 않는다
讀罷焚香坐	책 다 읽고 향 피우고 앉아있으니
門無俗客來	문에는 속객들 찾지를 않네

홍인모 역시 각 題材마다의 특징에 따라 자신의 맑은 세계를 그려내면서 題材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강화된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① 「松間明月」에서는 솔 숲 사이 맑은 달빛의 그윽한 정취를 즐기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정취의 強化를 위하여 “昭曠紅亭”을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다. 이것은 지향하는 맑은 세계가 강화되기보다는 추구하는 세계가 분열되는 느낌을 받게 한다.

② 「竹裏清風」에서는 대나무 성질을 그려내면서 자연 속의 대나무가 아닌 사람 마음속의 대나무로 읊어내고 있다. 그래서 작자가 지향하는 정신세계 속의 강인한 모습의 선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③ 「林中雙鶴」에서는 시인이 있는 이 숲이 “舊清江”을 잇을 수 있을 만큼 맑은 동산이며 이렇게 맑은 곳이어서 학이 옛 터전을 잇은 것이지 배불리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자의 선비정신이 반영되어 寓意가 드러나 있는 시이다.

④ 「東籬黃菊」에서는 “黃菊”을 “百花”와 비교하여 서리 내린 가을에 혼자 유독 향기롭게 피는 꽃임을 강조하였다.

⑤ 「小樓焚香」에서 ① 「松間明月」의 “昭曠紅亭”과 대비되는 곳은 곧 “책보는 누대[書樓]”이다. “翫靜”과 “置芬華”, “시인”과 “속객”이 이중적 세계로 드러나 보인다.

홍인모는 영수합 시에서와는 다른 분위기로 선비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대부, 곧 선비여서 갖게 되는 出處에 대한 이중적 의식이 시 전반에 드러나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후기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의 다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개별 작가의 특성 차이이기도 하다.

영수합의 시에서는 士大夫家 여성의 시대적 지향점이 읽힌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시각과 청각적 미감을 적절하게 살려서 눈앞에 보이는 실경과 題材의 맑고 담박한 세계를 조화롭게 그려내는 청신한 미감이 드러난다. 동시에 정신세계가 맑고 담박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놓음으로써 충담한 풍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 시는 이백의 「自遣」 시에 차운한 시이다.

東風解殘雪 봄바람이 남은 눈을 다 녹이니
 幽石露苔衣 오랜 바위 이끼 옷이 흰히 드러나
 月上萬壑靜 달이 뜬 온 골짜기 고요한 것은
 林間宿鳥稀 숲속에 지는 새도 드물어서라¹⁶⁾

이백의 「自遣」¹⁷⁾은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달래고 있는 시로, 이백답게 술 마시며 떨어지는 꽃을 옷으로 삼다가 취한 채 시냇가 달 감상하면서 읊은 시이다. 영수함은 이백이 혼자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그린 것에 차운하여 자기대로의 봄밤의 그윽하고 달 밝은 고요하고 청신한 세계를 그려놓고 있다.

다음 시에서는 그녀의 시적 흥취가 수식적 노련함을 통해 드러난다.

捲簾高閣聽鳴蟬 주렴 걷은 높은 누대 매미 소리 들리는데
 鳴在清溪綠樹邊 맑은 계곡 푸른 숲가 저편에서 울어댄다
 雨後一聲山色碧 비온 뒤라 그 소리에 산 빛은 더 푸르러서
 西風人倚夕陽天 가을바람 노을 지는 하늘 아래 기대섰다¹⁸⁾

村鳩處處喚新晴 촌 비둘기 곳곳에서 날 개었다 우짓는데
 雨後清溪入戶鳴 비온 뒤라 시냇물은 문에 졸졸 흘러든다
 野色林容碧如水 들관 색 숲 빛은 푸르기가 물 같은데
 落霞猶自暮山橫 게다가 지는 노을 저문 산을 다 비춘다¹⁹⁾

위의 두 편의 시는 清新하면서도 소리가 있는 시이다. 비온 뒤의 맑고 푸른 주변 풍광을 맑고 시원한 매미소리, 촌마을 비둘기 소리로 열어주면서 시간적으로도 막 노을 지려는 시점을 묘사해서 차분하고 그윽한

16) 『令壽閣稿』, 「次李白自遣」.

17) 李白, 「自遣」, “對酒不覺暝 落花盈我衣 醉起步溪月 鳥還人亦稀”

18) 『令壽閣稿』, 「聽蟬」.

19) 『令壽閣稿』, 「新晴」.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시청각적 심상을 잘 표현하여 시를 더욱 맑은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絶句詩라는 형식을 통하여 감각적 표현을 주로 활용하여 맑고 깨끗한 풍광, 이미지 묘사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청신한 세계를 보여주면서도 감각적인 미감을 잘 살려내었다.

捲簾風滿袖	발 걷으니 바람 가득 소매에 불고
倚枕月橫床	베개 베니 침상 온통 달빛 비친다
夜靜禽聲歇	밤 고요해 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堦虛樹影長	텅 빈 섬돌 숲 그림자 드리워 있다
薔薇先自落	장미꽃은 제냥 먼저 시들어지고
芍藥晚生香	작약은 늦도록 향기 풍기니
漸覺芳菲晚	그 향기 저물녘에 더 잘 알겠고
還憐杏子黃	살구 또한 노랗게 익음 사랑스럽다

散步星初落	오락가락 거닐자니 별도 지는데
披襟夜不寒	옷깃 풀어 헤쳐도 밤에 안 춥네
孤雲度天末	외로운 구름 저 하늘 끝 사라지는데
缺月掛林端	이지러진 달 숲 끝에 걸려있구나
山靜鳥聲歇	산 고요해 새소리도 안 들리는데
樓高角語闌	높은 누대 나팔소리 밤 깊어간다
忘形仍坐寐	자신조차 잊고서 앉은 채 자니
虛寂夢逾安	욕심 없어 꿈까지 편안하구나 ²⁰⁾

이 시에서는 늦봄의 달 밝은 밤의 담박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속기 없이 그려놓았다. 장미는 제풀에 시들어서 그대로 아름답고, 작약 향기는 “晚”이라는 시어를 두 번에 걸쳐 쓰면서 늦게까지 향기를 풍겨서 고마운데 저물녘 늦은 시간이라 더 향기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살구가 노랗게 익어감에야 더할 나위없다면서 자연의 가장 일상적인 풍광을 따뜻한 눈으로 읊어내고 있다. 그러니 잠 못 들고 오락가락

20) 『令壽閣稿』, 「次杜」.

하면서 함련에서 “孤·缺”의 시어를 쓰고 있어도 쓸쓸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만들기 보다는 맑고 담박하며 속기 없는 정신세계를 그려낸다. 결국 尾聯에서 “자신조차 잊고서[忘形]” “욕심 없는[虛寂]” 경지에 다다른 듯 되었다면서 冲澹한 풍격미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아들 홍길주의 『令壽閣稿』, 「跋」,²¹⁾ “말을 뱉으면 문득 깨끗하고 탁 트여 넓으며 멀고 깊어서 대략 은둔자의 말과 같았다[吐辭輒清曠遐復大類隱遯者言]”고 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영수합은 조선 후기 士大夫家 婦女이므로 삶의 행동반경이 남성들의 사회적 활동만큼 넓지 못하고 자연 경물에 대한 감상도 다양하게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가의 여성이라는 특권은 양반가의 남성들이 학문적으로 경험하고 博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들이 詩作을 하는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덕분에 영수합은 사회적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자신만의 시세계를 형성하여 맑고 담박한 시세계를 통해 청신하고 충담한 풍격미를 성공적으로 그려내었다.

2. 따뜻한 감성과 전아한 풍격²²⁾

영수합은 達成徐氏 士大夫家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豊山洪氏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당대 재상을 지낸 홍석주를 비롯하여 吉周·顯周·幽閒堂 原周 같이 뛰어난 문인들을 배출한 어머니이다. 영수

21) 洪吉周, 『令壽閣稿』, 「跋」, “先妣未嘗習聲律 晚始爲府君所彊 吐辭輒清曠遐復大類隱遯者言”

22) 車柱環, 앞의 책, pp.116-117, “司空圖, 『二十四詩品』에 典雅는 바르고 우아하다는 뜻이며, 시의 풍격의 하나로서의 典雅를 實境에 雅淡한 情趣를 곁들여 그려냈다”, 하정승, 앞의 책, pp.115-121, “劉勰, 『文心雕龍』에서 시문의 품격을 八體로 나누고 그 첫 번째에 典雅를 ‘經文과 誥文을 본받아 儒家를 모범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함에게 있어 자식들은 자신의 평생을 모범적으로 지켜온 삶의 結晶體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녀의 시작품 중에서 모성애를 드러낸 시에는 이렇게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賢母를 철저히 실현한 모습이 주로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이 시들에는 여타 시들에 비해서 따뜻한 감성과 그리움의 정서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한양과 농서를 오가며 부모를 뵈러오는 자식들에 대한 애뜻함, 농서 땅에 살면서 고향인 한양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정감이 교차되면서 따뜻하면서도 반듯한 모습으로 전이한 풍격이 드러나 있다.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 영수합의 사랑은 한결같고 절절했으나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아들마다 다소 차이를 두었던 것 같다. 모성애가 드러나 있는 영수합의 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큰아들 석주에게 주는 시보다 막내아들 현주에게 주는 시가 그 정감의 표현방식이 더 직접적인 편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큰아들에 대한 영수합의 남다른 기대와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嚴母를 자처한 영수합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74년에 태어난 큰아들 석주는 1786년에 태어난 둘째 길주와의 나이차가 12년이나 되었고, 셋째 현주(1793년 生)와는 거의 20년 차이가 났다. 이를 통해 석주는 꽤 오랫동안 집안의 첫 아들이자 외동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때문에 석주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석주가 기록한 「행장」에도 ‘첫아들로 오랫동안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만큼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석주가 처음 났을 때 온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었고 10살이 되도록 동생이 없어서 그 사랑을 받음이 지극하였으나, 4~5세 되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순종치 않으면 엄격하게 꾸짖어서 용서치 않고 크게 울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 맹서한 후에야 그쳤다.²³⁾

23) 洪奭周, 『令壽閣稿』, 「行狀」, p.7, “奭周始生時 舉家無它幼穉 奭周生十餘歲 又未有弟妹 其見愛亦至矣 然自四五歲有一事不循 誨立呵責 無少寬貸至大 啼

아들을 사랑하여 곁에 없으면 편안히 잠 못 이루는 어머니와 그것을 염려하여 잠시도 밖에서 머물지 못하는 큰아들인 자신의 孝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²⁴⁾ 이처럼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으로 키워 낸 석주와는 달리 둘째 길주나 셋째 현주에게는 보다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길주가 높은 벼슬에 오르고 현주가 부마가 되자 오히려 염려하였고, 문장에 뛰어났던 길주가 밤낮으로 과거 공부에 몰두하니 “우리 집안이 이미 융성하게 되었다.”²⁵⁾고 하며 말릴 정도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令壽閣稿』에는 아들들의 시에 차운한 시가 14題 전한다. 구체적으로 차운 대상을 구분해 보면, 큰아들 4題, 둘째아들 1題, 막내아들 6題, 여러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²⁶⁾가 3題이다. 시 형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특히 막내 현주에게 차운해서 주는 시를 주목할 만한데 古詩 형식으로 길게 쓰고 있으며, 근체시일 경우에도 여러 편을 이어 쓰는 聯作詩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편폭을 길게 한 시를 통해 보고 싶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送別京行」처럼 제목을 통해서 차운의 상황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시의 내용을 볼 때 아들의 한양행을 송별하는 시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중국시인의 시작품을 차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다음 세 편의 시는 세 아들에게 주는 시로 차운시의 형태이다.

泣誓不敢復爲 然後已”

24) 洪奭周, 『令壽閣稿』, 「行狀」, p.10, “奭周 自襁抱中 不忍一日去先妣側 先妣亦不忍一日令奭周去側 及先妣年益高 而奭周亦寢衰 奭周 或一日去家 先妣爲不能安寢 奭周 亦不敢少淹于外 (蓋生五十年 而猶若在襁抱中時也)”

25) 洪奭周, 『令壽閣稿』, 「行狀」, p.8, “吾門戶亦已盛矣”

26) 『令壽閣稿』, 「送別兩兒」 2題.; 「贈兒輩」 1題.

①

蒼蒼曉色暗行塵	어슴푸레 새벽빛에 가는 모습 희미한데
悵望樓頭別恨新	누대 끝서 바라보니 이별의 한 새록새록
多情最是隴山月	다정하기 최고인 건 바로 저 농산의 달
今夜分明遠趁人	오늘 밤 먼 길 가는 저 사람을 비추겠지 ²⁷⁾

②

行人暗逐一陽還	객 년지시 떠돌다가 동지 ²⁸⁾ 지나 돌아오니
滿袖寒香自故山	소매 가득 찬 향기 고향에서 왔구나
憑闌梅園春意早	문건대 매화 동산 봄소식 빨리 오니
疎林棲鶴夢猶閑	성긴 숲속 깃든 학 꿈 또한 한기할 테지 ²⁹⁾

③

星河漸落曉雲多	별들 점점 잦아들고 새벽 구름 많아지니
萬樹烟霞似綠波	안개 늘 긴 울창한 숲 마치 푸른 물결 같다.
鷄鳴將送漢陽客	새벽 닭 울면 한양 손님 보내야 하는데
此別年年幾度過	이런 이별 해마다 몇 번이나 해야 하나 ³⁰⁾

①시는 큰아들 석주를 보내면서 지은 시로 이별의 곡조 중에 곡조가 너무 절절해서 후대인들이 三疊으로 부른다는 王維의 「陽關曲」을 차운하였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빛 속에 아들을 보내며 “누대 끝서 바라보니 이별의 한 새록새록[悵望樓頭別恨新]”이라고 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러나 轉句에서는 ‘다정한 달[多情月]’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모정을 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달빛으로 묘사하여 맘 상하는 데에까지 감정이 치닫지 않도록 절제의 묘를 살리고 있다.

②시는 오랜만에 부모에게 온 둘째아들 길주를 반기는 내용인데, 그

27) 『令壽閣稿』, 「送長兒用陽關韻」.

28) 일양(一陽): 一陽節로서, 冬至節을 의미한다.

29) 『令壽閣稿』, 「仲兒還呼韻」.

30) 『令壽閣稿』, 「次韻送季兒還京」.

반가움을 고향향기를 몰고 와서라고 한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도 농서에서 지내던 영수합은 농서를 세속 먼지를 떠난 청정한 곳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인 한양을 끝없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둘째아들[仲兒]이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시인데 送詩가 아니어서인지 시 전체가 애뜻한 모성보다는 고향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매화 핀 봄 동산’과 ‘학이 깃들어 꿈꾸는 숲’ 등으로 마치 이상향을 그리듯이 고향을 묘사하였다.

③시는 막내아들 현주가 한양 가는 것을 보내면서 쓴 시로, 시 전면에 보내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들을 보낼 생각에 별마져 찾아들어 어느새 날 밝아지려는 새벽 즈음까지 꼬박 잠 못 이루고 날을 샌 것이다. 안개 낀 숲 속 정경이 마치 푸른 물결 같다는 묘사는 물가에서 임을 떠나보내는 심경을 연상하게 한다. 結句에서도 정지상의 「대동강」시를 차운한 詩句의 운용을 통해서 이별의 감성을 더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큰아들 석주가 처음 謝恩使 書狀官으로 燕京에 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지은 「寄長兒赴燕行中 五首」(1803년)를 보면, 五言絶句 형태의 다섯 수의 시를 통해 조선후기 士大夫家 婦女가 사랑하는 아들을 중국으로 떠나보내는 면모를 철저하게 그려놓았다. 이 시는 석주에게 준 유일한 연작시이기도 한데, 내면에 사랑과 염려가 넘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절제의 묘를 살리고 있다. 곧, 생활면·교육면·의식면에서 철저하게 규범적이며, 엄격하게 유교적 婦德을 실천한 모범적 삶의 소유자로서의 어머니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수합이 높은 경지의 유교적 윤리로 자신을 수양하고 있는 士大夫 못지않은 고도의 정신세계를 지닌 여성임을 미루어 알게 한다.³¹⁾

다음 시는 막내 현주에게 준 시이다.

31) 김여주, 앞의 책, 2004. pp.357-361. 참조.

①

夢入芝蘭室³²⁾ 꿈에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還疑玉樹傍 되려 玉樹 같은 아들 곁에 있는 듯
 (중략)
 不嫌久離別 오랫동안 헤어져도 맘 안상하니
 唯願慎行藏 출처함에 신중하길 바랄뿐이네

②

戀爾還無寐 너 그리워 또한 잠 못 이뤄서
 靑燈永夜焚 푸른 등불 긴 밤 내내 밝게 태운다
 徘徊瞻北極 서성이며 북극성을 올려다보고
 悵悵望南雲 서글프게 남쪽 구름 바라다본다
 野店鷄聲亂 들 주막에 닭의 울음 시끄러운데
 官樓角語分 관아 누대 귀퉁이서 사람 말소리
 慙慙書數紙 간절하게 종이에 몇 자 적으니
 努力報吾君 임금님 은혜에 보답하라고

③

獨上高樓望遠天 홀로 높은 누대 올라 먼 하늘 바라보니
 寒風吹散野無煙 찬바람이 불어 흩어 들엔 안개 다 걷혔다
 行人何處看雲暮 길 떠난 이 어느 곳서 저물녘 구름 볼까
 客子今宵得月先 나그네라 오늘 밤 달을 제일 먼저 볼 걸
 鳥雀聲喧隴樹裏 참새들은 언덕 숲서 시끄럽게 지저귀고
 星河影落漢城邊 은하수는 한양 성 밖 저 끝으로 저무는데
 殊方霜雪催窮臘 타향의 서리와 눈 저문 한해 재촉하니
 白髮鄉思重黯然 백발노인 고향 생각 우울하기 그지없다³³⁾

五言律詩 2수에 七言律詩 1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작시이다. 자식에 대한 자부심과 당부를 그려놓고 있는 ①시는 큰아들 석주에게 준 시와

32) 지란실(芝蘭室): 본래 賢士가 거처하는 곳을 비유한 말이다. 여기서는 아들 흥현주의 방을 지칭한다.

33) 『令壽閣稿』, 「次季兒寄示韻 三首」.

시적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②, ③시에서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석주에게 준 시와는 확연히 다른 정서를 읽을 수 있다. ②시에서는 막내아들을 떠나보내 놓고 잠 못 이루며 서성이며 母性을 내비치며 새벽 밝아오는 상황을 안타깝게 그리다가 나라에 충성할 것을 당부하는 마무리로 자신의 맘을 다잡고 있다. ③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결국 한양의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로 대체해 놓았다. “어느 곳서 저물녘 구름 볼까[何處看雲暮]”와 “오늘 밤 달을 제일 먼저 볼 걸[今宵得月先]”에서 가는 중에도 구름과 달을 제일 먼저 볼 것이라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시인의 면모가 돋보인다. 또한 청각과 시각을 적절하게 동원해서 시공간을 쓸쓸하면서 담박한 세계로 형상화하였다. 막내아들을 보내는 아쉬움을 세 편의 시를 통해 상당히 길게 그려놓고 있는 것에서 막내아들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搖落寒山外	나뭇잎 다 떨어진 겨울산 너머
蕭蕭對雪岑	쓸쓸하게 눈 덮인 산봉 마주 본다
村煙含暮景	마을 안개 저물녘 풍광 감싸고
野樹作疎陰	들 숲은 드문드문 그늘 만든다
織月初生影	가는 달은 처음 떠서 모습 드러내
明輝已滿林	밝은 빛을 숲 가득 내리비친다
非關添白髮	무심하게 백발에 밝은 빛 더하더니
還得照丹心	되려 맑게 내 마음 비추어 준다
倚杖霜華冷	지팡이 짚고 나서니 서리꽃 차고
披書燭影深	책 펼치니 촛불 그림자 깊어만 간다
幽禽翻凍羽	숨은 새는 언 것을 파닥거리고
癡鶴和清吟	여윈 학은 읊조림에 화답하는 듯
帳裏驚殘夢	휘장 속서 어렴풋한 꿈 놀라 깨니
風邊送遠砧	바람 멀리 다듬이 소리 실어 나른다
豪情依寶劍	호기로움 보배로운 검에서 나고
逸興拂瑤琴	빼어난 흥취 옥 거문고 떨쳐 나온다

莫使離人聽 떠나는 이 그 소리 듣게 말아라
 空將別恨侵 공연히 이별의 한 밀려 올테니
 烹茶閑不寐 차 끓이며 부질없이 잠 못 드는데
 孤角忽晨音 외로운 뿔피리 문득 새벽 알린다³⁴⁾

막내아들의 시에 차운한 고체시이다. 처음 1·2句와 마지막 19·20句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를 맞추어서 짓고 있으니 그 탁월한 시적 재능을 알 수 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차분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려져 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시공간이 겨울밤으로, 그 중에서도 가는 달의 밝은 빛이 숲을 내리비치는 밤으로 묘사되어 차고 맑으며 그윽한 풍광으로 그려졌다. 그 속에 자신은 백발에 비긴 달빛에 되려 맑은 마음을 비취보고 있다는 것이다. 11·12句의 “숨은 새는 언 깃을 파닥거리고 여윈 학은 읊조림에 화답하는 듯[幽禽翻凍翮 癯鶴和清吟]”에서 ‘숨은 새’, ‘마른 학’으로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면서 작은 움직임과 맑은 소리를 통해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묘사한다. 결국 “멀리 다듬이 소리[遠砧]”와 “옥 거문고[瑤琴]”의 소리로 이별의 쓸쓸함을 喚起시키고 있으며 이별의 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니 떠나는 사람에게는 들려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시의 묘미는 마지막 두 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수심스러울 법한 정감을 참으로 단아하게 마무리 짓고 있다. 마치 차 끓이느라 잠 못 이룬 양 자신의 수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읊어내는 표현을 통해 절절한 모성을 자연스럽게 절제의 묘를 살려 전아한 풍격으로 그려내고 있다.

『令壽閣稿』에 전하는 영수합의 시들은 남편의 임지인 농서에서 생활한 5년 동안 쓴 것이어서 고향인 한양을 그리워하는 시들이 유독 많이 보인다. 또한 앞서 인용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시들도 그 作詩 배경이 대부분 아들을 한양으로 떠나보내거나 혹은 아들이 한양에서 다니러오는 경우에 함께 차운시를 지은 경우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34) 『令壽閣稿』, 「又次季兒韻」.

고향을 그리는 향수가 공존하는 작품들이 많다.

蕭蕭閣夜冷	쓸쓸하게 누대의 밤 차가운 것은
穆穆林風生	그윽한 숲속 바람 불어서이다
朗月三更滿	밝은 달빛 깊은 밤 온통 비치니
秋空萬里清	가을 하늘 만 리 까지 끝없이 맑다
池邊唯草色	못가에는 풀 빛갈만 푸르러 있고
檻外自泉聲	난간 밖 샘물 홀로 소리를 낸다
望裏鄉山遠	바라보니 고향 산천 멀기만 해서
那堪久客情	오래 떠난 손의 정은 어찌 견디나 ³⁵⁾

임지인 농서의 풍경이 맑고 담박하게 그려져 있다. 영수합이 추구하는 정신세계의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그려 내다가도 결국 이곳이 타향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절한 심상을 토로하고 만다.

①

家家鷄黍熟	집집마다 닭 잡고 기장밥 지어
處處走村翁	곳곳마다 촌 노인네 찾아가서는
共醉重陽節	중양절 그날 함께 술에 취하여
相看華髮同	서로 머리 허연 것 바라본다네
風鳴霜樹外	서리 내린 숲 너머 바람은 불고
雨細菊花中	국화꽃 피었는데 부슬비 내려
盡日憑高閣	저물도록 높은 누대 기대선 채로
鄉山望不窮	끝없이 고향 산천 바라보노라

②

清風吹竹葉	맑은 바람 대 앞에 불어오는데
何處醉山翁	산 노인네 어느 곳서 술에 취했나
好月今宵滿	좋은 달은 오늘 밤 환히 비추고

35) 『令壽閣稿』, 「七月既望登以觀亭賞月」.

寒葩舊歲同	쓸쓸한 파초는 옛 모습 그대로
鳥啼夕陽裏	새들은 해 지는 중에 우짖고
鴈度暮雲中	기러기는 저문 구름 속을 나는데
頓覺鄉思切	고향 생각 간절함을 문득 깨달아
登樓眼欲窮	누대 올라 눈 가는데 끝까지 본다 ³⁶⁾

이보다 앞서 실려 있는 시 「次唐山館」에 1810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를 지을 때는 농서에서 지낸지 3년을 넘긴 때이다.

그래서 ①시의 首聯과 頷聯에서는 촌 노인들과 일상처럼 중앙절을 즐기고 있는 따뜻한 모습을 익숙하게 그려놓았지만 頸聯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제시하며 향수를 환기시키고 있다. 결국 ‘가을’이라는 특정 계절과 ‘중앙절’이라는 명절이 고향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②시에서는 대 앞에서 이는 바람소리 속에 술 취한 산 노인네[山翁]로 자신을 세워놓고 이어 온갖 제재를 동원하여 고향 그리움을 그려놓았다. ‘환한 달 빛’·‘고향서도 보았을 파초 잎’·‘해질녘의 새소리’ 그리고 ‘나는 기러기’의 시각적·청각적 심상을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 역시 尾聯에서는 끝없이 펼쳐낸 고향 그리움을 절제의 묘를 살려 추스르고 있는데 “문득 깨달아[頓覺]”라는 시어를 통해 이 절절한 수심을 일시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치 있게 절제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아담한 정취가 묻어난다.

이상에서 영수함은 모성애와 향수를 드러낸 시에서는 비교적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감성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글퍼서 애를 끊이는 감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도록 자연스럽게 절제하고 있으니, 절제의미를 심분 발휘한 “哀而不傷”함을 통해 전아한 풍격미를 엿볼 수 있다.

36) 『令壽閣稿』, 「小重陽次杜 二首」.

3. 노련하고 힘 있는 선비 의식 형상화

영수합의 문집에 작품 배열을 보면 시대적으로 선집 되었다는 언급은 없지만 여섯 수의 시³⁷⁾에 나타나 있는 연도를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배열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수합의 시는 뒤로 갈수록 시적 흥취와 수식적 노련함이 드러나 보이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古詩 등을 활용하여 힘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어나가는 면모를 보이니 남성적 분위기, 곧 선비의식을 느낄 수 있다.

선비 의식이란 士意識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사대부 문학을 표방하는 조선조에서는 사대부 의식이다. 사대부 의식이란 유가적 전통사고 방식아래 학자로서의 士와 從政의 大夫로서 문인학자이면서 관인으로서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出·處의 양면적 삶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대부 의식, 곧 선비 의식은 사대부가 주류를 이루는 조선 후기 사대부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고였다.

정통 사대부가 집안의 영수합의 경우, 士大夫家 여성에게 부가된 유교적 윤리 규범이 더욱 엄격하게 삶을 지배하여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지만 동시에 사대부가 남성들이 학문적으로 경험하고 博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관료로서 출처의 양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대부 남편과는 다르게 학구적이면서 현실적 의식 감각이 드러나는 부분을 영수합 나름의 士大夫家 여성의 의식, 곧 광의의 선비 의식이라고 상정하였다.

腥海千年不再清	탁한 바다 천년돼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데
星槎飛過幾重城	사신의 배 몇 개의 성 날 듯이 지나왔나
官郊嫩柳烟中細	관가 들 밖 어린 버들 안개 속에 가너리고

37) 『命壽閣稿』, 1. 「寄長兒赴燕行中 五首」癸亥(1803.); 2. 「次杜春水」戊辰(1808.); 15. 「呼韻雜詠」己巳(1809.); 66. 「次唐山館」庚午(1810.); 104. 「次杜四首」辛未(1811.); 110. 「次韻二首」壬申(1812). (숫자는 수록 次第를 말한다.)

驛路輕塵雨後生	역정 길엔 비온 뒤도 가는 먼지 일어난다
日射旌旗春色爛	깃발에 내리쬐는 해에 봄빛 무르익고
風鳴鼓角曙光晴	바람결에 울리는 북 나팔에 새벽 갠다
相逢盡是同鄉客	서로 만난 이들 모두 같은 고향 사람이니
青眼何須問姓名	반가움에 성명 물을 필요 무에 있겠나 ³⁸⁾

앞부분에서 보여준 영수합의 시들에서 볼 수 없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제목을 잘못 해석하면 본인이 사신을 다녀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선이 사신을 다녀오는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수합이 생활하고 있는 농서의 慈悲嶺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라 한 것³⁹⁾으로 보아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이었다.

首聯에서 “탁한 바다 천년돼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데[腥海千年不再清]”라는 표현에서 청나라로 오가는 사신 길이 얼마나 고된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어려운 뱃길을 지나오는 수고를 묘사하였다. 반면에 그렇게 다녀오는 사람들을 맞는 농서의 풍광은 안개 속에 버들 늘어진 봄날로 사신 행렬의 분주하고 들레는 모양을 따뜻하게 그려놓았다. 경련에서는 사신 깃발에 내리쬐는 햇빛에 봄 풍광이 무르익고 북 나팔소리에 새벽이 맑게 개는 밝고 희망적 분위기로 표현하면서 미련에서 고국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상봉의 기쁨이 성명을 물을 필요도 없이 “青眼”일 것이라고 따뜻한 맘으로 대변한다. 남성들의 사신 다녀오는 행차에서의 느낌, 관리로서의 의식을 본떠서 그리려 하지 않았지만 사신 행차에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여성의 시선을 견지하는 노련함을 보여준다.

다음 시는 제목에서 보듯이 큰 바다를 관찰 대상으로 하여 짓는 觀物詩를 지으면서 “擬作”이라고 附記해 놓았다.

38) 『令壽閣稿』, 「使自燕還用杜韻」.

39) 『新增東國輿地勝覽』 5, pp.310-311.

酌水坳堂上 뜰 움푹 패인 곳에 물 부어놓고
 泛芥認爲海 티끌을 떠운 채 바다라 하네
 蒼蒼非正色 푸른 빛 하늘 본 모습 아니고
 東溟元斯在 동쪽 바다는 원래 그 자리 있던 것⁴⁰⁾

이 시는 『莊子』·「逍遙遊」의 구절을 인용하여 외물을 바라보는 시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었다. 사물이나 현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보여 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無何有之鄉에서 노니는 장자의 정신세계를 공감하면서 그 세계를 大海로 받아들여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기구·승구에서 보여주는 작은 세계에 대비해서 전구·결구에서는 이치를 깨우쳐 알 수 있는 세계를 그림으로써 여성성보다는 학자적 선비 의식을 드러내었다.

歲短滄洲暮 한 해 짧고 푸른 물가 날 저무는데
 途窮更溯源 갈 길 궁해 근원 찾아 거슬러간다
 長河萬里遠 긴 강물은 만 리 흘러 멀기만 하고
 古壁千尋尊 오랜 절벽 천 길로 높기만 하다
 浩浩何能涉 넓고 넓어 어찌하면 건널 수 있나
 迢迢不可捫 높고 높아 더위잡고 오를 수 없네
 歸來收散帙 돌아와 흩어진 책 수습하자니
 文采玉如溫 그 문장 옥처럼 온아(溫雅)하구나⁴¹⁾

남편과 함께 「呼韻」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이다. 같은 韻字로 지은 시에서 “근원[源]”이라는 詩語를 통해 근원에 포인트를 주고 시를 읊기는 마찬가지로이지만 홍인모는 근원을 따라 가는 길에서 만나는 풍광에 자족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영수합도 함련과 경련에서 경물의 그윽한

40) 『令壽閣稿』, 「觀大海 擬作」.

41) 『令壽閣稿』, 「呼韻」.

洪仁謨, 『足睡堂集』 卷4, 「呼韻」 16首 中 其五, “山徑緣溪轉 何時到水源 波平方覺闊 峰拔自爲尊 微雪牛蹄沒 孤雲鶴背捫 躊躇看物色 春氣漸晴溫”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는데, 결국 사고의 근원, 삶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음을 토로한다. 건널 수 없는 깊은 세계, 오를 수 없는 높은 세계는 바로 옥처럼 溫雅한 세계 곧 文章, 책속에서 찾겠노라는 현실적이면서 현학적이지 않은 선비적 사고세계를 보여 준다.

특히 중국 유명시인들의 운자를 사용하지 않고 남편 홍인모가 지은 시의 운자를 사용한 경우, ‘擬作’이라는 용어를 附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양자 간의 창수 상황이 유추된다. 영수합의 시작품에는 남편 홍인모와의 창수 상황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足睡堂集』 수록 시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 같은 운을 사용한 차운시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영수합이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잦은 창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합의 시 작품들은 유독 ‘아들’과의 시적 교류만 문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대부가 부녀의 문학행위에 일정한 구속이 있었을 것은 물론이고, 『영수합고』의 작품들이 選集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차운시를 통해서 가족 간에 시를 주고받고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데도 특별히 “의작”이라고 附記한데는 남편과의 긴밀함을 영수합 나름대로 특별하게 드러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 시들이 갖는 시세계의 특징들도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人生無定居	인생이란 정해놓은 삶이 없는 것
四時迭相代	사계절도 번갈아 서로 바뀌네
我欲超塵網	먼저 긴 세상을 벗어나고자
靈襟久不昧	마음 오래 어둡게 두지 않았지
彈劍起長嘯	검 두드리며 일어나 길게 휘파람 부니
聲震宇宙內	그 소리 온 천지에 울려 퍼진다
性本愛名山	성품 본래 이름난 산 좋아하여서
馳神嵩與岱	마음 매양 송산(嵩山) 태산(泰山) 내달렸었지
三洲咫尺視	삼주(三洲)를 바로 옆에 보는 듯하고
蓬萊眼前在	봉래(蓬萊)가 눈앞에 서 있는 듯

古壁昂然立	오래된 절벽은 우뚝 서있고
蒼厓屹相對	푸른 벼랑 솟구쳐 마주하였다
日月耀其顛	해와 달은 산꼭대기 비추어서
昭明洗氛穢	밝게도 나쁜 기운 씻어내 준다
烟霞繞其面	안개는 그 얼굴을 빙 둘러싸서
窈窕生百態	그윽하게 온갖 모습 다 갖추었네
采芝光堪摘	지초 캐니 그 빛은 취할만하고
懷蘭香堪佩	난초 향기 품어서 차고 다닐 만
怒瀑鳴危石	성난 폭포 높은 바위 울리며 내려
飛珠噴如碎	나는 구슬 부서지듯 뿜어 나온다
仙人如復見	신선이 만일 와서 다시 본대도
一筇無所礙	대 지팡이 하나로도 거리낄 것 없네
窅窅白雲裏	깊고 그윽한 흰 구름 속에
依徯聞犬吠	어렴풋이 개 짖는 소리 들린다 ⁴²⁾

남편인 홍인모의 『족수당집』에 있는 「訪名山 得岱字」라는 시를 본떠 짓는다고 하였다. 홍인모는 상고시대 隱者인 허유가 箕山에 숨었듯이, 공자께서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듯이 자신도 산을 찾아 오른다면서 금강산에 찾아간 것을 읊고 있고, 그 시를 보고 영수합 자신이 산을 찾아가고 있는 듯이 읊고 있다. 사계절 운행하듯 인간의 삶도 변화막측 운영됨을 깨닫고 있어서 속세 벗어나서 인간의 순수한 본성(靈襟)을 맑게 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산을 찾는 명분이며, 그래서 5~6구에서 “검 두드리며 일어나 길게 휘파람 부니 그 소리 온 천지에 울려 퍼진다”고 그 기개를 설파하고 있다. 타고나게 이름난 산 좋아하여 중국의 숭산 태산을 마음속으로 내달려볼 지경이어서 금강산 올라보니 신선산을 마주한 듯 높고 맑은 기운을 느낀다고 하였다.

42) 『令壽閣稿』, 「訪名山 擬作」.

洪仁謨, 『足睡堂集』 卷4, 「訪名山 得岱字」, “許由隱於箕 仲尼登彼岱 我亦欲訪山 名山列海內 選勝將何向 金剛屹無對 玉立萬二千 峰峰仙佛配 萬瀑貫其中 吼雷或鳴佩 毗盧出東極 蓬海眼底在…”

남편인 홍인모가 금강산의 유명한 곳들을 열거하며 그 특징들을 읊어 내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그려진 금강산의 모습을 통해 영수합 나름의 시적 표현으로 맑고 담박한 세계를 만들어놓는다. 해와 달과 가까워 밝은 기운 가득하고 안개 쌓여 갖가지 그윽한 모습 연출해내는 곳, 芝草 蘭草로 맑고 깨끗한 세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막힘없이 노련하게 시세계를 끌고 가는 힘을 보여준다. 게다가 성난 폭포의 나는 구슬 부서지는 역동적 위력으로 금강산 勝景의 정점을 찍으면서 신선산 같다는 앞부분의 표현에 맞추어 선계가 따로 없어 신선이 와본대도 꿀릴 것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결국 “依倚聞犬吠”로 이곳이 신선세계가 아닌 인간세계임을 확인케 하면서 인간적이면서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영수합의 의식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남편의 시를 통해 보는 금강산의 모습을 맑고 담박한 세계로 그려내면서 고체시의 형식을 통해서 끈덕지게 자기세계로 형상화 시키는데 성공해 내는 것은 영수합의 시적 노련함과 힘 있는 선비 의식을 보여주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론 자신의 세계를 읊어내면서도 가만히 남편의 기상을 읊어주는 듯이 읊조려 가고 있는 어질고 노련한 사대부가 여성을 만날 수 있다.

①

三王惟好德	삼왕(三王)은 오직 덕만 좋아하셨고
五帝不觀兵	오제(五帝)는 군사의 힘 과시 않았네
治亂無形象	정치의 잘잘못은 형태 없지만
安危在聖明	나라 안위 임금의 총명에 달려
陽春回萬物	화창한 봄 만물을 소생시키고
雨露浹羣生	비·이슬도 온갖 생물 두루 미치네
古道更難見	옛 성인 도는 다시 보기 어려워
空懷遺世情	공연히 속세 떠날 생각 품겠지

②

短褐與蓬鬢	짧은 갈옷, 쭉대머리 한 이들은
皆稱都護兵	모두 관청 예속된 병사들이다

年鄉還不記 나이 고향조차도 기록 없는데
 名姓豈分明 이름인들 어찌 분명할 수 있겠나
 未得霑恩澤 아직 임금 은택을 입은 적 없어
 安能託死生 어찌 나라 위해 죽음 택하겠는가
 持斯欲何往 이 맘으로 어딘들 가려고 할까
 難服遠人情 멀리 갈 이 마음은 얻기 어렵지⁴³⁾

홍인모가 임소인 농서[서홍]의 관아에서 “點兵犒賞 군병을 뽑아놓고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면서” 지은 시에 차운한 것이다. 남편이 군병들을 뽑아 놓고 관리의 입장에서 젊은 시절부터 병서에 관심 있어서 韜略과 陣圖에 밝아 오랑캐 무찔러서 충성하고 싶은데 늙어가고 있음이 맘 상한다고 탄식하고 있다. 더불어 백성들이 군병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군령이 嚴明함을 강조하는 관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영수합은 중국의 성군인 三皇五帝의 德治를 언급하면서 나라의 治亂과 安危가 임금의 현명함에 달려있다는 의식 있는 발언을 쏟아낸다. 陽春과 雨露가 자연 생물을 소생시키듯 그렇게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옛 성인의 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선비들이 속세를 떠나 隱者가 되려고 하는 심경을 알겠다는 것이다.

②시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좀 더 백성들의 편에 서서 따뜻한 모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관아에 군병으로 예속된 백성들의 남루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읊으면서 그들에 대한 변변한 기록조차 없으며 이름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을 열거하였다. 이렇게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나라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음을 날카로우면서도 백성들의 대변자인양 어머니의 맘으로 말하는 것이다. 결국 미련에

43) 『令壽閣稿』, 「次東軒點兵韻 二首」.

洪仁謨, 『足睡堂集』 卷4, 「點兵犒賞 呼韻共賦 二首」, “莫笑腐儒老 少時曾讀兵 胸中韜畧壯 掌上陣圖明 願切胡塵掃 心違鬢雪生 今朝空饗士 彈劍不勝情”; “井井先王制 村農本是兵 陣容時組練 軍令在嚴明 疎畧愁非古 昇平幸此生 始知湯火易 一飽見羣情”.

서 “이 맘으로 어딘들 가려고 할까 멀리 갈 이 마음은 얻기 어렵지[持斯欲何往 難服遠人情]”라고 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어찌 위무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밝힌다. 관리의 입장에서 농사꾼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여 나라 지키는 군사로 만들 것인가를 탄식하는 남편과 달리 자연을 소생시키는 “춘양 우로” 같은 은택으로 그들을 살려서 그들 스스로 나라를 생각해 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백성을 가엽게만 보는 여성적 감성보다는 의식 있는 선비적 사고를 직접적인 시어로 표현한 작품으로, 부드럽지만 세밀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老健한 풍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영수합의 선비적 면모는 명망 있는 사대부가의 여성으로 특혜를 누리며 살면서 사대부들의 시각에 간혀서 일방적으로 사대부적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서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모성애를 지닌 따뜻한 눈으로 타자-백성-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영수합 특유의 의식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시적 미감으로 형상화하는 재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적 능력이 모여서 『영수합고』라는 문집을 이룰 만큼 시를 쓸 수 있었으며, 조선 후기라는 여성에게는 구속적 사회상황 아래서도 아들들에 의해 당당하게 문집이 출판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중국에 까지 소개되었다는 것⁴⁴⁾은 이러한 면모를 반증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영수합이 본격적으로 시를 짓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늘그막에 隴西로 부임해 가면서부터인데, 시 짓기를 좋아했던 홍인모가 자신의 시에 화

44) 박무영, 「조선후기 한중 교유와 젠더담론의 변화-徐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제4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4.

답할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강권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영수합 시의 대부분이 농서 시절에 가족과의 창수에서 이루어져서 그 대상이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두 딸이었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 드러난 시적 주 대상은 아들들이었고, 남편에 대한 情意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더욱이 큰 딸 幽閒堂 洪原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녀의 시집 『幽閒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이 모두 농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의 여성 시작활동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문집으로 발간할 수 있었던 영수합의 시에 대한 자식들의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며, 『영수합고』의 작품이 선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적어도 여성시집을 발간하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을 때 시세계의 면면이 士大夫家 女性으로서 모범적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그것에 적합한 시들이 선별되었을 것이다. 그 시각에 충족되어진 작품들이 200수 가까웠다면 그것은 영수합이 한사람의 작가로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는 것이며 작품의 특질들을 통해 조선후기 남성들이 원하는 사대부가 여성 시의 세계가 어떠한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농서에서 생활하면서 주변의 경관과 일상의 흥취를 맑고 담박하게 청신한 미감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충담한 풍격으로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로 분류해 보자면 모성을 드러내거나 농서에 있으면서 고향인 한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그리면서, 따뜻하고 절제된 깔끔한 감성이 전아한 풍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擬作’이라는 표현을 통한 남편과의 창수 작품에서는 여성적 감성보다는 노련하고 힘이 있는 선비 의식을 표출하였다.

영수합의 시에서는 분명히 士大夫家 여성의 시대적 지향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시각과 청각적 미감을 적절하게 살려서 눈앞에 보이는 실경과 題材의 맑고 담박한 세계를 조화롭게 그려내는 청신한 미감이 드러

난다. 동시에 정신세계가 맑고 담박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놓음으로써 충담한 풍격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아들 홍길주가 『令壽閣稿』, 「跋」에 “말을 벨으면 문득 깨끗하고 탁 트여 넓으며 멀고 깊어서 대략 은둔자의 말과 같았다[吐辭輒清曠遐復大類隱遯者言]”고 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영수합은 達成徐氏 士大夫家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豊山 洪氏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당대 재상을 지낸 홍석주를 비롯한 吉周·顯周·幽閒堂 原周 같이 뛰어난 文人을 배출한 어머니이다. 그것은 영수합 자신의 모범적 삶의 結晶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모성애를 드러낸 시에는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현모를 철저히 실현한 모습을 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다른 시들에 비해서 따뜻한 감성과 그리움의 정서가 솔직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더구나 타향인 농서에 있으면서 한양과 농서를 오가며 부모를 뵈러오는 자식들에 대한 애뜻함, 고향인 한양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정감이 교차되면서 따뜻하면서도 반듯한 모습으로 전아한 풍격을 드러내고 있다. 영수합은 모성애와 향수를 드러낸 시에서 감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편이지만 서글퍼서 애를 끊이는 감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절제하면서 “哀而不傷”함을 통해 전아한 풍격미를 드러낸다.

영수합의 시는 뒤로 갈수록 시적 흥취와 수식적 노련함이 드러나 보이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古詩 등에 힘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면모에서 남성적 분위기, 곧 선비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남편의 시를 통해 보는 금강산의 모습을 맑고 담박한 세계로 그려내면서 고체시의 형식을 통해서 끈덕지게 자기세계로 형상화 시키는데 성공해 내는 것은 영수합의 시적 노련함과 선비 의식을 보여주는 면모이다. 또 관리의 입장에서 농사꾼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여 나라 지키는 군사로 만들 것인가를 탄식하는 남편과는 달리 자연을 소생시키는 “춘양 우로” 같은 은택으로 그들을 살려서 그들 스스로 나라를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드러내

기도 한다. 단순히 백성을 가엽게만 보는 여성적 감성보다는 의식 있는 선비적 사고를 직접적인 시어로 표현하여 부드럽지만 세밀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老健한 풍격을 형성해냈다.

이러한 영수합의 선비적 면모는 명망 있는 사대부가의 여성으로 특혜를 누리면서 사대부들의 시각에 간혀서 일방적으로 사대부적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서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모성애를 지닌 따뜻한 눈으로 타자-백성-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영수합 특유의 의식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시적 미감으로 형상화하는 재능을 보이고 있다.

영수합은 조선후기 士大夫家 婦女이므로 삶의 행동반경이 남성들의 사회적 활동만큼 넓지 못하고 자연 경물에 대한 감상도 다양하게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특권은 사대부가 남성들이 학문적으로 경험하고 博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詩作을 하는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영수합은 사회적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여 맑고 담박한 시세계로 청신하고 충담한 풍격미를 성공적으로 그려내었으며 자식들에 대한 모성과 향수의 감성을 따뜻한 감성과 전아한 풍격으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일상에서 사고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실적이며 부드럽지만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선비 의식의 면모에서는 노건한 풍격을 드러냈다.

이러한 시적 능력이 모여서 『영수합고』라는 문집을 이룰 만큼 시를 쓸 수 있었으며, 조선후기라는 여성에게는 구속적 사회상황 아래서도 아들들에 의해 당당하게 문집이 출판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중국에까지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면모를 방증하는 것이다.

<參考 文獻>

徐令壽閣, 『令壽閣稿』.
 洪奭周, 『淵泉集』.
 洪原周, 『幽閒集』.
 洪仁謨, 『足睡堂集』.
 洪顯周, 『海居齋詩鈔』.
 『新增東國輿地勝覽』.

權相老編, 『韓國地名沿革考』, 동국문화사, 1982.

김여주, 「金雲楚의 漢詩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朝鮮後期 女性文學 研究-令壽閣 徐氏의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 교육연구』 제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 「徐令壽閣의 漢詩研究」, 『朝鮮後期 女性文學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박경신, 「栗谷 李珣의 詩文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박무영, 「조선후기 한중 교유와 젠더담론의 변화-徐令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제4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4.

이정화, 「徐 令壽閣 詩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徐令壽閣 詩의 風格研究-次韻詩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5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조연숙, 「조선후기 · 서영수합」, 『한문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최정원, 「徐令壽閣의 研究」,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2.

Abstract

*Artistic Characteristics of Yeongsuhap's Poetry / Kim Yeo Ju**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Yeongsuhap(令壽閣)'s Chinese poetry in the light of women's literature. That is, they have looked at how gentry women in the late Chosun period expressed their consciousness in Chinese poetry with cultural and literary varieties. On the contrary, this study attempts to infer the poet's consciousness through their works and examine their literary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their writing backgrounds as it is important to appreciate the literary values of their works by analyzing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inherent in the works.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traits inherent in the works themselves and pure sentimental aspects they have by taking a microscopic point of view.

First of all, Nongseo(隴西) has pure and simple poems that portray surrounding landscapes and joys from daily life with cheongshin(清新) senses, matching pure and simple nature and bringing out their chungdam(冲澹) traits.

In quantity, a majority of them express their motherhood while still a majority describe their longing for their hometown, Hanyang, with warm but disciplined voices. Yeongsuhap directly expresses these feelings, imparting jeonah(典雅) beauty through "aebulsang(哀而不傷)" senses.

Again, "Euijak(擬作)" the intercalary poem work with her husband, depicts the consciousness of a well-versed classical scholar rather than womanly sentimentality, which can be explained as the influence of scholarly culture on the gentry woman's upbringing. However, it can be assured that Yeongsuhap

*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 yjkim@sungshin.ac.kr

established her own world of poetry with a warm eye as a mother who embraces the others while peering into reality with a sharp insight.

【Key words】 Yeongsuhap(令壽閣), Women's literature, Cheongshin(清新),
Chungdam(冲澹), Jeanah(典雅), Nogun(老健)

투고일 : 5월 8일, 심사일 : 5월 21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